

고흥 나로도서 ‘청정 수산물 축제’ 열린다

제8회 나로도 수산물축제
13~15일, 물양장 일원서
수산물 경매·장어잡기 등
다채로운 체험·문화공연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에서 ‘청정 수산물축제’가 펼쳐진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나로도 물양장 일원에서 제8회 나로도 청정 수산물축제가 열린다.

나로도는 과거 삼치 파시(波市, 삼치가 대량으로 잡히는 시기에 형성됐던 임시 어시장)로 이름을 날렸던 유서 깊은 어촌이자, 현재는 나로호를 발사한 우주센터 등이 소재하며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거



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이번 축제는 봉래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수국이 만개하는 초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지역 대표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에서는 나로도의 싱싱한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나들이’를 비롯해, 수산물 깜짝 경매, 새우 팔리까지 대회, 맨손 장어잡기 체험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문화공연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팝페라 공연, 시니어 모델 패션쇼, 전통 혼례 재현, 관객 참여형 토크마당 ‘나도 텔런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흥군의 특산물인 쌀, 유

자, 돌미역 등 지역 농수산물 판매코너와 향토음식점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고흥의 맛과 멋을 동시에 선사할 전망이다.

축제 기간 인근 썬셋에서는 형형색색의 수국이 만개해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나로도의 수산물은 물론,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의 미래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꼭 한 번 방문해 생생한 어촌의 매력을 체험하고 수산물축제와 함께 썬셋 수국길을 거닐면서 초여름 고흥의 자연을 만끽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목공체험지도사 3급 자격증반 순천시, 18일까지 수강생 모집

전라남도 순천시는 목공예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전문 지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목공체험지도사 3급 자격증반’을 개설하고 오는 1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총 16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목공 기초부터 수공구 및 전동공구 실습, 반제품 제작까지 실습 중심으로 짜여 있어 수강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모집 정원은 20명이며, 최소 10명 이상 신청 시 개강된다. 교육수료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목공 관련 교육 현장에서 전문 교육인으로서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진행 및 보조할 수 있다.

교육은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해룡면 여순로 1767-7)에서 실시되며, 수강신청은 이메일(jhj381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목공예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전문 지도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객실 가스·전열기기 안전상태 등

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난 10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객실 내 가스·전열기기 안전상태, 비상대피 동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가정의 달 연휴에 발생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이 관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의료600 바른 자세 교정 운동 교실’을 운영중이다. 전문 운동 지도사가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직장인 대상 ‘바른 자세 교정 운동 교실’ 운영

전라남도 보성군이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료600 바른 자세 교정 운동 교실’을 운영하며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습관 정착은 물론 건강 위험 요소인 거북목 증후군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폰과 PC 사용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장인들의 경부 통증과 척추 불균형 등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자세 습관과 신체 건강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및 PC 사용 증가로 인해 경부 통증과 척추 불균형 등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일환이다.

일상 속 잘못된 자세로부터 발생하는 건강 위험 요소를 줄이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성군보건소는 사전 신청자 중 건강고위험군 35명을 선발해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인바디 검사, 리얼피티 검사, 사전 건강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별 신체 상태를 분석하고, 전문 운동 지도사가 개인 맞춤형 자세 교정 해결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직장인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실습 중심의 스트레칭과 교정 운동을 통해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 바른 자세 유지와 체형 교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양종수 기자

포스코퓨처엠,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

울촌산단 내 연 4만5천톤 생산 규모

전라남도 광양시는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10일 울촌산업단지에서 광양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구충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포스코퓨처엠 임기천 대표, 포스코홀딩스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광양 전구체 공장은 기존 포스코퓨처

엠 광양 양극재 공장부지 내 총 2만2400㎡(약 68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연간 4만5000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갖췄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로, 그간 국내 배터리 산업은 핵심 소재인 전구체 대부분을 해외, 특히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해 왔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번 공장 준공을 통해 전구체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양극재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됐

다. 전구체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황산니켈 또한 포스코그룹 내 자체 공급망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공급 안정성과 경쟁력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전구체 공장 준공은 자립적 소재 공급망 구축의 첫걸음이자,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중대한 이정표”라며 “광양시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전(全)주기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인 만큼 기업의 도전이 곧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인력, 정주 여건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구례군, 위생·친절 교육 실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난 9일 구례섬진아트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으로 위생·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구례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위생등급제 추진사항 안내, 덜어먹기·남은음식 재사용하지 않기·나트륨 절감 건강식단 실천하기·어린이 식생활·기호식품 안전관리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고객 응대 친절 서비스, 원산지 표시 방법 등도 안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식품위생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주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2025년 하반기 국제 철인 3종 경기와 2026년 전라남도체육대회가 구례에서 열리는 만큼, 관광객과 선수단이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환경에서 구례의 맛과 따뜻한 서비스를 경험하며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고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 내일부터 23일까지 참가자 모집

전라남도 고흥군은 ‘2025년 고흥 스페이스 푸드 챌린지’ 참가자를 13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고흥 수제맥주 양조장 입점 매장 선별을 위한 창업 경진대회로, 고흥 전통시장과 수제맥주브루어리를 중심으로 로컬 식음료 창업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이다.

고흥 전통시장, 지역 특산물, 우주산업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 참여 요강과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는 12일 고흥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5개 팀이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고흥 수제맥주브루어리 내 창업 공간 입점 기회(최대 2년)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최대 40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집기 등 창업 시설비와 전문가 멘토링, 브랜드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창업 지원도 이뤄진다.

참가 자격은 고흥군에 거주 중인 개인, 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팀별 3인 이내)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메뉴나 상품 개발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고흥군청 누리집(www.goheun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goheung2@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고흥 도시재생지원센터(061-835-8661)로 전화 확인을 해야 한다. 고흥=심정우 기자